

# 하이테크經營과 孫子兵法

지난번 하이테크경영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다. 호텔방문을 열어보니 두툽한 봉투가 책상에 놓여있었다. 일정표와 근처의 식당약도및 회의장소등에 대한 안내서가 들어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엔 작은 책자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將軍』이나 『노블하우스』등의 저자로 유명한 제임스 크라벨이 편집한 『孫子兵法』(영문제목은 The Art of War)이었다.

책속에는 이번 세미나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참석자들은 세미나 시작 전까지 반드시 읽어 보라는 쪽지도 들어 있었다.

2천4백여년전 中國 春秋戰國時代에 쓰여진 책이 오늘날 하이테크경영자를 위한 세미나에서도 참고서적으로 배부되고 있는것을보고 美國에서까지도 『孫子兵法』에 대한 가치는 아직도 그어떤 경영전략·전술지침서보다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

제임스 크라벨은 서문에서 『만일 美國의 군인이나 정치지도자들이 손자병법을 잘만 연구하였다더라도 越南戰이나 韓國動亂등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며 심지어는 세계 제1차대전이나 제2차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책에 비중을 상당히 두었다.



## 여인갑

삼성휴렛팩커드 전무이사

『손자병법』의 用間篇에 보면 『情報를 장악한 사람은 전쟁도 장악한다』고 되어 있다. 즉 정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된 것이다.

또한『손자병법』을 한마디로 압축해보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兵書가 아니라 싸우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이테크시대의 경영도 어느 한쪽이 흥하면 상대방이 쇠퇴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도록 협력하여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주고 상대방이 잘되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 쪽도 더 잘 될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고 플러스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손자병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하이테크 경영자가 추구할 길이라 하겠다.